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미사 독서: 심윤필 베르나르도, 황권희 클라라
다음주 미사 독서: 김태진 하상 바오로, 김예중 안나 마리아
금주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는 윌프레드
다음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윤지희
다음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 모어,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231
교무금: \$250
합 계: \$ 481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1 월 13, 27 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1 월 7, 21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택 (1 월 6, 20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오늘의 묵상

‘인간은 누구인가?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물음들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먼 옛날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의 의문점들을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모진 고생과 위험을 받아들이고 이겨 내겠다는 뜻입니다. 길을 찾아 떠나는 동방 박사의 모습은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길을 떠난다는 것은 포기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듯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편안함과 개인의 욕심을 버리는 자기 비움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견주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려는 열정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갈지 살펴볼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삶의 온갖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주님 공현 대축일]

2012 년 1 월 7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60, 1-6

<제 2 독서> 에페소서, 3, 2, 3, 5-6

화답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악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2, 1-12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복음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시작: 487 봉헌: 108 성채: 112 파견: 100



성서 이야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음전수

-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네 개의 복음서가> 헤르만 헨드릭스 지음 -

1. 네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친척을 만나게 된다면 그 친척이 누구이며,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 살고, 결혼은 했는지, 했다면 누구와 했고, 자녀는 얼마나 두었는지, 성격은 어떻게 기호나 취미는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보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친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복음서를 접하게 될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특히 그러하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배경은 어떻게, 역사적 맥락은 어떠하며 어떻게 한 예수님에 대해 상이한 기록 (공통된 기록도 많지만)이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서의 기원과 기록의 발전을 규정하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복음서의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2.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인가 아니면 말씀의 선포인가?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지난 한세기동안 복음서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리이며 사도였던 마태오가 첫번째 복음서를 썼고 마르코는 베드로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한 두번째 복음서를 썼으며, 루가는 “목격하고 말씀의 시종이 된 사람들이 전해 준”(루가 1:2) 것을 정리한 세번째 복음서를 썼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영성적”으로 묵상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통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성서학자들은 복음사가들이 글로써 기록을 남기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예수님 사후 몇십년이 지난 후인 초세기 후반부에 기록으로 남겨진 복음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공관복음서에 기술된 예수님 생애에 대한 여러 사건들의 기록을 토대로 예수님의 전기가 완전히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때도 있었다. 즉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순서대로 잘 짜집기를 한다면 예수님 일생의 전기를 재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해 보면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전기를 완성하는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열두살의 성전방문(루가 2:41-51) 이후 “서른 살 가량되어 전도하기 시작”(루가 3:23) 한 기간 사이에 예수님 생활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마태오, 마르코, 루가의 복음서 사이에는 여러가지 사건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성서학자들이 취한 태도는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복음기술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출하여 기록이 빠진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복원하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로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던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두번째 태도가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즉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만드는 대신,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의도를 선포하는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추세가 강하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다음 주 피정 안내입니다.

일시: 1월 14일 (토) 오후 3시- 15일 (일) 오후 4시.

장소: Schoenstatt Sisters of Mary W284 N404 Cherry Lane, Waukesha, WI 53188

피정은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서, 필기구, 세면도구를 준비하세요. 비용은 어른 (16세 이상) \$63, 어린이 (5세-15세) \$40, 네 살 아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피정 동안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까지 박상훈 신부님에게 신청바랍니다. 미사후 피정에 대해 간단한 안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미사는 없고, 일요일 오후 3시에 피정 장소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 새해 달력 아직 안 받아가신 분 받아가세요.
- 청소기, 마이크 도네이션 받습니다.

3. 복음서 전승의 세 단계는 무엇인가?

신약성서의 구성은 네 복음서를 항상 앞 부분에 두고 있는데, 이 배열이 신약성서에 있어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바오로 사도의 편지는 네복음서 보다 먼저 기록으로 쓰였으며(기원후 50-60년) 비록 네 복음서의 기초가 될 기록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네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기원 후 65년에서 100년 사이인 것이다.

즉 신약성서를 연대순으로 배열코자 한다면 적어도 네 복음서는 바오로사도의 편지 다음에 배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네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 하려면 이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신약성서의 구성은 연대순이 아니란 점이다. 실제로 네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 약 35년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선교활동이 있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네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대략 기원 후 30년경에 이루어졌다면 최초의 이 기간과 복음서가 나타난 65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전승되었는가? 적어도 35년간 네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1964년에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발표한 문서 “복음서의 역사적 진리에 대한 교서”는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다.

“복음서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내용의 신빙성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해석자는 특히 전승의 세 단계,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3 단계에 주의를 쏟아야 할 것이다(6항 2)...성서를 해석할 때 복음서의 구성이나 그 근원에 관계되는 사실들에 주의를 쏟으며 근대적 조사 방법에서 얻을 수 있을 만한 결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복음서 저자들의 진의와 그들이 사실상 무엇을 말했는가 밝히는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10항)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지정한 전승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팔레스타인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단계
- 2) 부활사건 후 팔레스타인과 그 외 지역에 형성된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서를 형성케 한 단계
- 3) 복음사가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단계

(다음주에 이어서)